

민형배 “‘검찰 독재’ 막고 ‘민주당의 심장 광주’ 살릴 것”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재명과 두터운 신뢰 강조 헌재·대법원 등 권력기관의 지역 분산 추진 방침도 밝혀 호남 후보 현재 2명...향후 선거 결과 지역민 관심 커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재선·광주 광산구·사진) 의원은 9일 “윤석열 검찰 독재와 전면전을 위해서는 오직 승리만을 향해 돌진할 최강전사가 필요하다”며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전 대표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민형배는) 지난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전 대표를 지지했고, 이전 대표는 험난한 시기에 나에게 당 전략 기획위원장과 정치검찰 사건조사 특별 대책단장을 맡겼다”고 이재명 대표와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전력을 거론한 뒤 “탈당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검찰 부리지않고 계속 싸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고속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며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검찰 독재 음주운전을 멈춰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무너뜨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어야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하겠다”며 “비상한 방법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음주운전을 멈춰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호남의 중심인 광주에서 출마하는 최고위원 후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권력기관의 지역 분산’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민 의원은 “검찰 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 국정원 그리고 곧 우리가 만들어 나갈 공소청, 중수처도 거대 권력기관”이라며 “법과 제도의 개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권력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 기리끼리 째짜미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권력기관 지역 분산은 민주당의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최고위원 민형배는 권력기관 지역 분산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심장, 광주를 펼쳐 펼쳐 살아 움직이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정치인은 당원과 시민이 바라는 대로,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한다”며 “최고위원 민형배는 당원 중심 시대, 1인 1표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의 표의 등가성을 절대 원칙으로 한다”며 “국회의원, 단체인, 지역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권리당원으로 1표를 갖는 민주당의 체질 개선을 중기 과제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이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호남 출신 최고위원 후보는 이성윤 의원(초선·전주을)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 호남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중 양향자 의원만 성공했을 뿐, 한병도·서삼석·송갑석 의원은 실패했다.

당시 한병도 의원의 경우 양향자 의원의 호남표 분산으로 낙선했으며, 서삼석·송갑석 의원은 ‘호남 단일후보’로 출마했는데도 분루를 삼켜 이번 민형배 의원의 도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 발의

“수입 확대 근시안적 정책...생산비 보전해 농어민 생존권 보장해야”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경제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월22일 기준 포기당 8천70원으로 1월 1천420원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양배추의 1ha당 생산비는 2023년 평균 4천204만원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천624만원보다 580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뭄·호우·저수운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 안정을 꾀하며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민의 농어업 이탈로 인해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해 차액 만큼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



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며 “식량 주권을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가격 하락시 임의로 매입하던 요건을 의무화해 국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김진수기자

“국립의대, 공공의료인력 양성의대 우선 지정”

김문수, ‘공중보건강화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방 공공의료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9일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 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강화법’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 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 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

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인건이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

양부남 “종부세, 신중한 접근과 검토 필요”

지난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이 국제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2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3천519억원의 67%에 해당한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1인당 5억8천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천27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83억2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뜰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중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REAM

DRREA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